

4 월 다섯째 주 케어 모임

1) 기도로 시작합니다.

2) 설교 말씀을 나눕니다.

1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이십년 1)기슬르월,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에,

2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 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 보았다.

3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4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5 아뢰었다.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6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피 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7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8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 버리겠지만,

9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10 이들은 주님께서 크신 힘과 강한 팔로 건져내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11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그 때에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 보고 있었다.

하나님의 음성 Part 4:

"느헤미야처럼 - 주위 사람들과 환경을 통해 들려주심"

질문 1)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고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 경험을 나눕니다.

질문 2)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 사람 살리는 일을 맡기시고, 나의 환경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환경을 개선하는 일들을 맡기십니다." 내가 다시 세워야 할 일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살려야 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3) 기도제목을 나누고 마무리 기도로 마칩니다.